

[환영사]

2005-3-25

한국의 여성환경연대와 이화리더십개발원이 공동주최하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환경친화적인 경제를 위한 여성리더십>을 주제로 한 아태 여성환경회의에 참가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멀리서 오신 인도, 베트남, 중국 그리고 일본 참가자들과는 특별한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ESCAP 환경장관 회담과 병행하여 열리게 된 이번 행사에서는 아태지역의 여성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소비와 여성',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경제를 위한 여성리더십' 문제를 여성의 눈으로 살피게 됩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결과물은 ESCAP 환경장관 회담에 요구안이 나온 형식으로 아태지역 여성들의 집단적 목소리로 전달되어 이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친환경적인 경제문제는 오늘의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 지구환경문제 해결의 핵심과제입니다. 인구의 반이며 소비와 경제문제의 주요 행위자인 동시에 주체인 여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구환경의 미래는 점쳐집니다. 특히 세계인구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여성들이 답지하고 있는 잠재능력 발휘는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과제를 하루에 한정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무리이지만 참가자들이 모두 전문가들일 뿐만 아니라 사전준비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내용있는 제안서가 마련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금번 회의에서의 논의결과가 요구안에 머물지 않도록 참가자 각자의 선 자리에서 실천에 옮겨지기를 바라면서 좋은 회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곳 이화대학교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의 배움터로 12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이 회의를 공동주최하고 있는 이화리더십개발원은 정치, 경제, 시민사회 등 각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 여성지도자들에게 성인지적인 지도력 양성과 네트워킹에 주력하고 있어서 여성활동가들에게 힘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태지역의 여성들이 환경문제를 여성의 눈으로 살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회의가 4월에 개최되었다면 캠퍼스의 아름다운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을텐데 아쉽습니다. 다시 이곳을 찾는 구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 한국여성들은 지난 3월 2일 지난 50여년간 여성들의 숙원이었던 '호주제폐지'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양성평등의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되어 고무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부장 이데올로기 논쟁에서 벗어나 여성의 경쟁력 키우기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아태여성환경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변 국가들 간의 갈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이 지역의 여성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미래세계를 위한 정보교류와 국경을 넘나드는 네트워킹을 통해 밝은 미래를 꿈꾼다고 하는 것은 여성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꿈을 꺾시다.